



과학기술정보협의회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HOME](#) [ASTI안내](#) [고객센터](#)



로그아웃



ASTI소식



기업분석 서비스



정보광장



ASTI라운지

과학기술정보협의회가 중소기업과 함께합니다.  
Association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정부지원사업의 준비**  
김창화 (서울지역팀 I 서울)

2017-1

사업계획서를 훌륭하게 작성해서 정부지원사업에 자주 선정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매출에 집중하느라 정부지원사업을 거의 안하는 기업도 많지만, 반대로 ‘과제로 먹고 산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들리기도 하는 것은 매출액 보다 정부지원비의 비중이 더 커서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 물론 생명공학 분야 또는 여성창업 기업의 경우 국내시장 특성 또는 일시적인 역량 부족으로 정부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분야든 창업후 데스밸리(death valley) 상황에서는 그런 의존성이 두드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매출 하지 않을 아이템이라면 절대로 정부지원사업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즉 구시대적 발상으로 ‘정부지원사업비는 눈 먼 돈’이라는 사고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잔존하며, 매출한계로 인한 자금난을 정부지원사업으로 타개하려는 노력보다 시간에 지금 아이템의 수익모델과 사업전략을 심각히 재검토하기를 권하고 싶다.

요즘의 정부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이 총사업비의 대략 1/3~1/5 범위이고, 개발목표 및 평가지표(능지표) 도달을 위해 최소 1명의 인력을 소모해야 되며, 그런 상황에 경영자도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공익을 눈먼 돈이 아니란 것은 아래 <표>의 사업비 구성을 따져보면 알 수 있다.

<표> 중기부의 대표적 R&D 사업의 사업비 구성

지원사업	구 분	사 업 비 (억원)				기업부담 비율	
		총액	정부지원	수요처	기업부담	현금	현물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비율	100%	80%	-	20%	50%	50%
	1년	2.50	2.00	-	0.50	0.25	0.25
	여성 <sup>1)</sup>	1.25	1.00	-	0.25	0.125	0.125
구매조건부 제품개발사업 (국내/해외)	비율	100%	65%	10%	25%	60%	40%
	2년	7.69	5.00	0.77	1.92	1.15	0.77
	매년	3.84	2.50	0.38	0.96	0.58	0.38
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비율	100%	65%	-	35%	60%	40%
	2년	7.69	5.00	-	2.69	1.61	1.08
	매년	3.85	2.50	-	1.35	0.81	0.54

※ <sup>1)</sup>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표>에 나타나 있듯이, 창업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창업성장)은 기업부담금의 현금이 2,500만원이나, ‘형 기술개발사업’(기술혁신)은 매년 8,100만원을 2년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어떤 중소기업의 연 매출액이 10억원이라 가정하면 연말 초 자금순환이 더딘 시기를 배제하면 월평균 1억원 내외의 현금이 확보될 것이다. 그렇지만 매월 인건비와 관리비, 외상의 재료비와 공비 등을 송금하면 지원사업 선정직후 0.5~0.8억원의 기업부담금은 자금유동성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이미 담보대출, 신용대출, 벤처대출로 더 이상 대출여력이 없을 death valley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따라서 매출하지 않을 아이템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수행은 장기적 경영상황의 개선에 별 도움이 안됨에 심각히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로 기존인력 1~2 명이 4개월 준비해야하고, 선정되면 거액의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후 신규인력 1명이 책상을 차지하고 밥값도 지출하며, 수행 중에는 개발에 관련된 일일-주간-간-분기-반기-연말보고 등으로 잊을 수가 없도록 계속 책상 앞에 나타나 전투력을 허비하게 한다. 또한 개발결과의 사양과 성능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증빙해야 되고, 종료 후에도 최종점검으로 찾아오면 개발결과물 제시, 최종보고서 제출, 결과발표 등의 신적 부담까지 생긴다.

그래서 언젠가 매출이란 기대조차 없을 것이라면 지원사업 수행으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전략적 매출을 하지 않을 것(즉 정부지원사업에 유혹보다 그 노력과 시간을 영업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평생의 사재를 털어 시작한 경영자들 나름으로 충분히 심사숙고 대응하리라 믿는다.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정보마당에는 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위임받아 운영(일부 R&D 사업 및 비R&D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R&D 사업은 흔히 개발과제 또는 과제라고 관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대체로 1년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

1/3

상의 기간에 1억원 이상의 사업비로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

이때 '참여율'이라는 것은 기존 연구인력들이 각자 연봉을 100%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참여하여 그 합계액이 공고된 기업부담·'현물' 총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한다. 그 목적은 특정업체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지원사업의 무한정 독식을 제한하는 것인데, 기존 연구원의 참여율 100%에서 각 지원사업들마다 현물로 조금씩 소진하여 100%를 초과하면 해당 연구원은 더 이상 타 지원사업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연봉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각 지원사업의 공고문이나 상위의 산업부의 사업비 지침 및 미래부의 공동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렇겠지만, 이미 수행하는 사업과 연구원 부족으로 더 이상 현물 참여할 수 없다면, 개발과 관련되는 사내 주요장비 및 시설의 사용료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장비 및 시설조차 없다면 현금으로 부담할 방법이 있다.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참여율 100% 범위에서 '3책5공'이리 것은 연구원 1명이 R&D 사업의 과제책임자로 3번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5번까지 병행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의 대표적 R&D 사업으로는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에 가장 일반적인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2억원/1년), 기존보다 혁신 기술을 제시하는 『혁신형 기술개발사업』(5억원/2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이 개발제품을 구매한다는 조건의 『구매조건부 제품개발사업』(국내/해외/민관공동투자)(5~10억원/2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고, 중기부 승격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여 더욱 다양한 사업들이 기대되기도 한다.

비R&D 사업은 주력제품과 관련된 부가적인 지원으로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특허분석, 시장조사,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략 수만원 수준의 사업비를 수개월 단기간 지원한다. 대표적 비R&D 사업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약점인 기술적 난관돌파를 위해 대학들과 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첫걸음/도약)(1억원/1년), 지원사업들 중 유일하게 양산라인의 개선을 지원하는 『제품공정개선』(제품선/공정개선)(0.5억원/9개월), 제품의 국내외 시장성과 경쟁력 조사를 대행해주는 『중소기업 R&D기획』(0.25억원) 등이 있다.

이러한 중기부 사업들중 일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사업비가 일부 기업에 편중되는 폐단을 또 다시 줄이고자 '줄임제'를 시행하여 4회까지만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해당되는 사업은 각 공고문에도 명시하고 있겠지만, ① 창업성장, ② 산학연 협력, ③ 제품정, ④ 제품서비스, 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의 총 5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총 4회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그 외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또는 주식공개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으로 가는 여정에 꼭 추천하고 싶은 타 기관의 비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특허 관련의 지원사업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KISTA/지재원)의 『IP R&D 전략지원사업』(0.2~1.2억원/10~20주간)과 한국발명진흥회(KIPA)에서 주관하는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이 있다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이 사업에 선정되면 해당 기업의 사업비가 변리사로 구성된 '협약기관'(특허법인)에 지원되어 목표하는 기술이나 제품과 관련된 특허 위주의 기술분석이 시작된다. 그 내용은 우리 중소기업의 조직력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다양한 글로벌 특허들의 분석과 대응전략들을 10~20주간 매주 변리사와 회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정부지원사업이다. 이때 특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들과 설해둔 온갖 지뢰밭을 염탐할 중요한 학습기회도 될 수 있다.

② 앞서 언급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기획』(0.25억원)은 전문적인 국내외 시장정보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지만, 2017년에 신설된 『중소기업 네트워크 기획』(0.3억원)은 기업현황, R&D전략, 사업화 전략, 기술, 지식재산권, 해외시장, 경제성 등 아주 광범위한 비R&D분야의 분석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진출 관련 지원사업으로 중기부의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 통합공고』(총3,729억원)를 확인해보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들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세계시장에서 디자인은 제품 본연의 기능과 차별성 등에 더불어 점점 제품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 대표적 지원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제품의 디자인, 포장, 각종 인쇄물 등의 다양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들은 개발뿐 아니라 양산하는 수출중진 제품에 대해서도 지원하므로 거액 R&D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품개선의 재정적 부담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 참고로 상기 '① 지재원의 IP R&D 사업' 중에도 디자인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 또는 (재)테크노파크에서도 제품 제작과 더불어 디자인은 대표적 지원사업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고도화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즉 다수의 전문인력이 수개월 이상 난관을 극복하며 최종 시제품을 개발해내는 성격의 기술개발이 R&D 지원사업의 대상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으로 수출도 가능하면서도 고용확대 많은 품목으로 점점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품교환 등을 통한 단순한 성능개량, 거의 대부분 외주의 의존하는 조립 성격의 발, 유통 성격의 개발, 양산시설로 보이는 개발, 이미 자사에서 생산 또는 판매중인 제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유흥업소 일반 숙박업, 도박, 향정신성 의약품 등과 관련된 개발은 비R&D 지원사업의 대상에도 제외된다.

만일 기업대표나 과제책임자가 여성일 경우, 또는 육아 등으로 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신규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여성창업으로 인정하여 특별히 지원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기부의 『창업성장개발지원사업』(1년/2억)중에 『여성참여활성화과제』(1년/1억) 있다. 또는 상대적으로 경영이나 기술적 측면의 업력이 약할 수도 있을 여성들을 위하여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업도 있다. 참고로 남성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평소 자동차, 골프, 유흥업소 등에 지출이 많아 서민경제와 거리도 있고 자금의 지하연계가 높을 수 있다면, 여성들은 동네커피숍, 동네마트, 동네미장원 등의 동네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일조하기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계속 장려하는 추세이다.

지원하기 전에는 개발대상의 제품(또는 기술)이 회사의 생존이나 사업성 확대에 절대적인지 경영/기획/영업/정보 담당자들이 시장조사, 경쟁사, 경쟁제품, 유사기술, 후발주자 등 심층적 분석을 장기간에 걸쳐 주도면밀히 타진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선행연구나 특허출원 등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성향이 있음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개발대상의 제품과 전략적 목표사양이 1차적 결론이라면, 중기부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등을 방문하여 전년도 연말 또는 신년에 공고한 '00년도 지원사업계획'을 확인한 다음, 그 중에서 목표하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횟수, 지원규모, 접수시기, 선정절차 등을 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개발을 주도할 '주관기관'은 제품의 개발, 시제품의 제작, 시험인증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수억 원 이상의 R&D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전문성 또는 기술 난이도에 따라 개발에 보조적 역할의 '참여기관' 또는 일부 성능시험 등을 위탁할 '위탁

관'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은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한 공동개발기관의 대학과 공동연구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연구(research) 성격의 개발(development)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학연(學研,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비의 일정비율을 의무적 편성하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개발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들은 항상 해당사의 공고문 확인하면 도움 될 것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우리 창업자 및 중소기업들은 중기부의 창진원, 기정원, 중진공 등의 지원사업들이 비적 적격이고, 매출이 수십억 이상 넘어서 자금력과 조직력에 여유가 생기면 산업부의 지원사업에 관심 가져도 될 것이다. 그 외 과학 등의 지원사업은 대학과 연계하지 않는다면 지원사업의 성격들을 고려할 때 약간 거리가 있는 편일 것이다. 한편 지방의 경우 지역특 또는 향토제품 육성을 위한 R&D 및 비R&D 지원사업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며, 중기부의 지원사업 중에는 단위의 범주에서만 경쟁하는 일부 지원사업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본 내용들에 언급되는 기준일, 기간, 금액 등의 수치들은 정부의 정책, 부처별 전략, 또는 각 지원사업마다 다르기도 하고 계속 변경 것이므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다음 컬럼(제3회)에서는 서면평가의 사업계획서의 기술성, 사업성, 사업비와 현장평가, 대면평가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본 내용의 수치와 기준 등은 정부의 정책 또는 부처별 전략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보기

이전글

정부지원사업의 개요

다음글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의 기술성

댓글(3)

좋아요 0

0 / 500자

정용하 2014.04.21

좋아요

정연학 2014.04.19

감사

윤치영 2014.04.16

정보감사합니다

ASTI소식

공지사항

ASTI 일정

회원사뉴스

기업분석서비스

스마트기업검색

밸류넷 분석

밸류체인 분석

정보광장

ASTI 컬럼

ASTI 성공사례

ASTI 마켓리포트

ASTI 인

ASTI 라운지

ASTI FAMILY BROCHURE

ASTI BAND

기업홍보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원 : (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원 : (130-7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COPYRIGHT (C) 20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All Right Reserved.

Famil